

2026년 6월 22일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투자전략팀

# KIWOOM WEEKLY

## KIWOOM WEEKLY

### 반도체 쏠림이 만들어내는 변동성 대응 방안

이번 주 코스피는 1) 미국 5월 PCE, 6월 기대인플레이션 지표, 2) 마이크로 실적, 3) 한국 6월(~20일) 수출, 4) 국내의 반도체 업종의 시장 집중화 지속 여부, 5) MSCI의 연례 시장 재분류 결과 등에 영향 받으면서 변동성 장세를 이어갈 전망(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8,700~9,400pt).

주식시장 내에서는 미국 마이크로 실적(한국시간 25일 새벽)이 메인 이벤트. 이번 마이크로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본 시나리오이며, 1) 얼마나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지, 2) 기존에 가이드نس로 제시한 GPM(매출총이익률) 81%를 달성 혹은 초과할 수 있는지(직전 분기 75%), 3) 차분기 가이드نس가 추가 상향될 수 있는지가 관건. 이는 현재 코스피에서 심화되고 있는 반도체 쏠림 현상과도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국내 반도체주 보유자들에게도 주중 최대 이벤트가 될 것으로 판단.



Strategi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RA 유지윤  
jiyun.yoo@kiwoom.com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6월 19일 현재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서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특히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1. 지난 주 주식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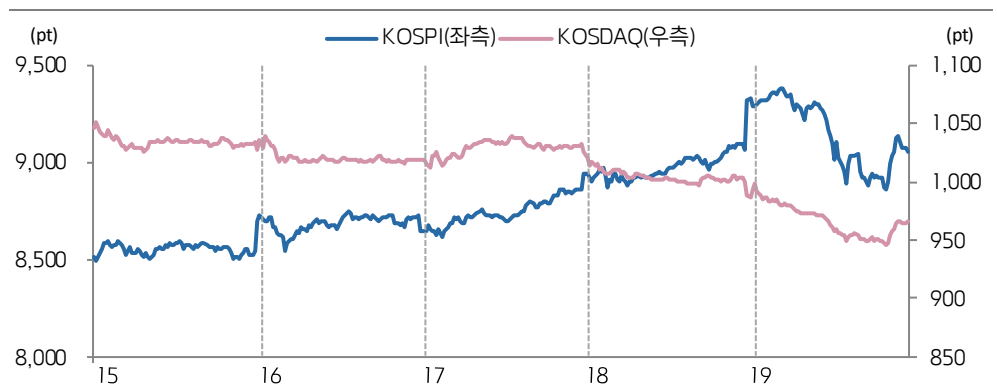
국내 증시는 미·이란 종전 합의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와 반도체 대형주 강세에 힘입어 사상 첫 9,000선을 돌파하며 상승했으나, 주 후반 단기 급등 부담과 차익실현 매물에 상승폭을 소폭 반납하며 마감(KOSPI +11.43%, KOSDAQ -6.07%).

코스피는 미·이란 종전 MOU 체결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소식에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상승. 유가 안정 기대에 자동차·조선 등 경기민감주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AI·HBM 수요 확대 기대에 따른 반도체 업종 상승세가 더해지며 지수 상승을 견인. 특히 17일 SK하이닉스가 주주 환원 기대감에 5%대 급등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삼성전자와 함께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매파적 FOMC 결과와 원·달러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9,000선 안착에 성공. 다만 주 후반에는 상승 탄력이 둔화. 종전 MOU 이후 예정됐던 후속 핵 협상 일정이 지연되며 불확실성이 재차 부각된 가운데,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까지 출회. 외국인 과 기관의 매도세가 확대되면서 코스피는 장중 사상 최고치(9,349pt)를 경신한 이후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며 마감. 반면 코스닥은 반도체 대형주 중심의 수급 풀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코스피와의 디커플링이 확대.

대외적으로는 중동 정세 변화가 증시 방향성을 좌우. 미·이란 종전 합의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완화시키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했고, 국제유가 하락은 경기민감 업종 강세로 연결. 여기에 AI 투자 확대와 HBM 시장 성장 기대가 반도체 업종에 대한 낙관론을 강화하며 외국인 자금 유입을 견인. 매파적 FOMC 부담을 상당 부분 상쇄. 그러나 주 후반인 19일 밴스 미국 부통령의 스위스 방문이 취소되며 후속 협상 지연 우려가 확대됐고 FTSE 리밸런싱 수급 부담과 5거래일 연속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겹치며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 증시 상승 탄력은 둔화.

업종별로 보험(+18.36%), 전기/전자(+16.59%), 제조(+13%), 금융(+10.12%)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건설(-9.9%), 통신(-6.18%), 일반서비스(-5.68%), IT 서비스(-5.6%), 섬유/의류(-4.5%)은 부진한 흐름. 한편, 외국인(+2조 5,397원)은 의료/정밀기기(-94억원), 섬유/의류(-34억원), 비금속(-32억원), 부동산(-25억원)순으로 순매수, 기관(-2,432억원)은 IT 서비스(-2,334억원), 음료/담배(-1,476억원), 유통(-1,345억원), 증권(-1,126억원)순으로 순매도.

### KOSPI, KOSDAQ 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2026년 6월 22일

KIWOOM WEEKLY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국가	경제지표	대상	전망치	이전치	
6월 22일	월	한국	~20일까지 수출 (YoY)	-	64.8%	
			~20일까지 수입 (YoY)	-	29.3%	
6월 23일	화	한국	소비자심리지수	6월	-	106.1
		미국	S&P 글로벌 제조업 PMI (잠정치)	6월	54.8	55.1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 (잠정치)	6월	51.0	50.7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지수	6월	-	13
6월 24일	수	독일	IFO 기업환경지수	6월	85.5	84.9
		회의	한국은행 금융안정회의			
		실적	마이크론			
6월 25일	목	미국	GDP 성장률 (최종치, QoQ)	1분기	1.7%	1.6%
			내구재주문	5월	-6.5%	8.0%
			개인소득 (MoM)	5월	0.4%	0.0%
			개인소비지출 (MoM)	5월	0.5%	0.5%
			PCE 물가지수 (YoY)	5월	4.1%	3.8%
			PCE 물가지수 (MoM)	5월	0.5%	0.4%
			PCE 근원 물가지수 (YoY)	5월	3.4%	3.3%
			PCE 근원 물가지수 (MoM)	5월	0.3%	0.2%
6월 26일	금	일본	도쿄 CPI (YoY)	6월	1.6%	1.4%
			도쿄 근원 CPI (YoY)	6월	1.5%	1.3%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최종치)	6월	49.9	48.9	
		미시간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최종)	6월	-	4.6%	
		미시간대 5년 기대 인플레이션(최종)	6월	-	3.4%	
		발언	뉴욕 연은 총재·시카고 연은 총재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2. 한국 증시 전망

이번 주 코스피는 1) 미국 5월 PCE, 6월 기대인플레이션 지표, 2) 마이크론 실적, 3) 한국 6월 (~20일) 수출, 4) 국내외 반도체 업종의 시장 집중화 지속 여부, 5) MSCI의 연례 시장 재분류 결과 등에 영향 받으면서 변동성 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8,700~9,400pt).

매파적이었던 6월 FOMC 이후 증시는 상승했으나, 달러 강세, 미 10년물 금리 상승 등 외환 및 채권 시장에서는 여진이 남아있는 상태.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5월 PCE(YoY 컨센 4.1%), 6월 미시간대 1년 기대인플레이션(컨센 4.6%)가 주중 변수가 될 수 있음. 하지만 이미 5월 CPI와 PPI를 통해 5월 인플레이션 향방을 확인했기에, 5월 PCE의 실질적인 영향력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 소비자들의 체감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WTI 유가가 70달러대로 레벨 다운됐다는 점을 고려 시, 6월 미시간대 기대인플레이션 쇼크의 현실화 가능성은 낮을 전망.

물론 지난 금요일 미 밴스 부통령의 출국 연기 논란 등과 같이 미국과 이란의 후속 협상을 놓고, 불안 심리를 자극할 만한 뉴스플로우가 이번주에도 출현할 수 있음. 다만, 지난주 내내 유가의 상방 압력이 크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시장은 여전히 종전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음을 시사하기에, 주중에 전쟁 불안 관련 뉴스플로우가 출현하더라도, 노이즈로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

증시 내에서는 미국 마이크론 실적(한국시간 25일 새벽)이 메인 이벤트. 마이크론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전 세계 주도업종인 반도체 내에서 대장주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 이번 실적에 따라 반도체의 증시 주도력이 강화될지를 결정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 우선 지난 분기 실적과 유사하게, 이번 분기에도 호실적이 유력하지만, 시장 눈높이가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음. 6월 이후 마이크론 주가는 16.7% 급등하며 신고가를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7.3%), 나스닥(+2.4%)의 성과를 큰 폭으로 상회했다는 점을 참고해볼 필요.

따라서, 이번 마이크론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본 시나리오이며, 1) 얼마나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지, 2) 기존에 가이드언스로 제시한 GPM(매출총이익률) 81%를 달성 혹은 초과할 수 있는지(직전 분기 75%), 3) 차분기 가이드언스가 추가 상향될 수 있는지가 관건. 이는 현재 코스피에서 심화되고 있는 반도체 쏠림 현상과도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국내 반도체주 보유자들에게도 주중 최대 이벤트가 될 것으로 판단.

실제로 국내 증시의 화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삼성전기 등 IT하드웨어에 대한 시장 집중화 현상임. 지난주 코스피가 11.4% 급등하며 9,000pt 레벨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IT하드웨어(+24.9%), 반도체(+18.4%), 보험(+16.4%) 3개 업종만 코스피의 성과를 상회했기 때문. 같은 기간 코스피200이 13.0% 상승했지만, 코스피200 동일가중지수가 -1.7%, 코스닥이 -6.2%를 기록하는 등 괴리가 벌어진 점도 코스피 내 소수 업종 시장 집중화 현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

이번 강세장은 반도체 실적 모멘텀과 밸류에이션 매력이 코스피 전체의 실적과 밸류에이션에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반도체로 시장의 수급이 몰리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음. 하지만, 지난 금요일 “코스피의 장중 변동성 확대 + 코스닥 연쇄 폭락”에서 체감했듯이, 단기간에 그 쏠림 현상이 과도한 데에 따른 일시적인 부작용도 주중 고려해야 할 변수. 따라서, 주중 미국 물가 이벤트, 미-이란 후속 협상 진전 등 외부 환경이 지난주보다 개선될 시, 반도체 이외 여타 주력 업종 및 코스닥의 소외 현상이 해소될 가능성을 대응 전략에 반영해 놓는 것이 적절.

그 외 주목할 만한 수급 이벤트는 24일 “MSCI의 연례 시장 분류”로 한국의 MSCI 선진지수 편

2026년 6월 22일

KIWOOM WEEKLY

입 관찰 대상국 등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 지난 19일 “MSCI의 연례 시장 접근성 점검”에서는 한국이 18개의 투자 접근성(외국인 투자 개방성, 자본유출입 용이성, 시장 운영 효율성 등) 항목 중에 8개가 “++”, 5개가 “+”로 이전보다 “+” 이상을 받은 항목이 1개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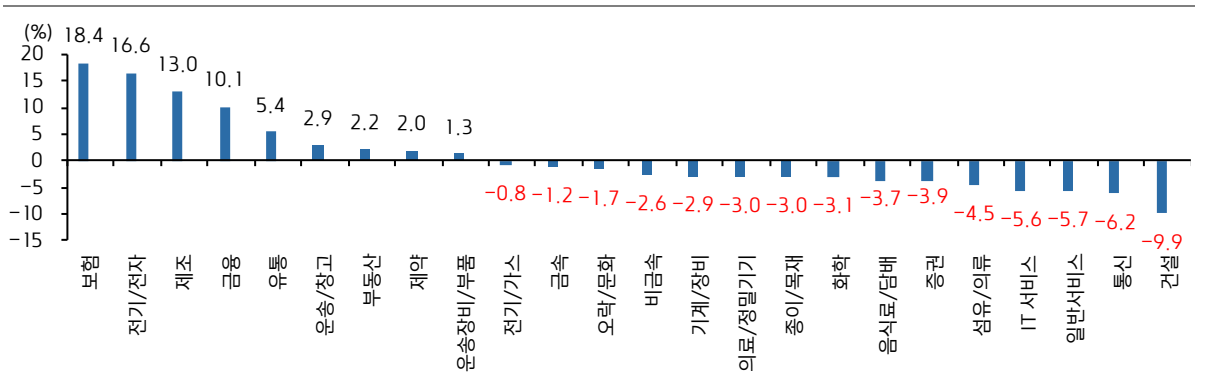
반면, 외환시장 자유화, 영문공시 등 5개 항목에서 “-”를 받았다는 점은 한국의 선진지수 관찰 대상국 등재에 불확실성을 부여하는 요인. 다만, 실제 불발에 그치더라도,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악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임. 지난주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10주만에 주간 순매수(누적 +2.5조원)로 전환한 것은 MSCI 선진지수 편입 기대감보다는 미-이란 휴전에 따른 유가 급락 등 양호해진 매크로 환경 속 반도체, MLCC 등 주도주 베팅 성격이 더 컸기 때문. 이를 고려 시, 선진지수 관찰대상국 등재는 수급 상방 서프라이즈인 것은 자명하나, 편입 불발을 수급상 악재로 받아들이는 것은 지양할 필요.

국내 주식시장 주요 지수 기간별 수익률

시장	증가(pt)	기간별 수익률			
		D-1(%)	D-5(%)	D-20(%)	YTD(%)
코스피	9,052.42	-0.1	11.4	24.5	114.8
대형주	10,063.53	0.1	12.6	27.5	129.9
중형주	4,440.90	-2.6	-3.0	-5.4	19.3
소형주	2,412.47	-3.0	-2.9	-11.7	-4.2
코스피 200	1,459.48	0.0	13.0	28.9	140.9
코스닥	966.59	-3.4	-6.1	-10.9	4.4
대형주	2,490.78	-3.2	-6.2	-4.7	10.6
중형주	951.69	-3.9	-7.1	-16.0	5.8
소형주	2,528.76	-3.2	-4.4	-16.5	-1.7
코스닥 150	1,722.28	-3.3	-6.2	-5.6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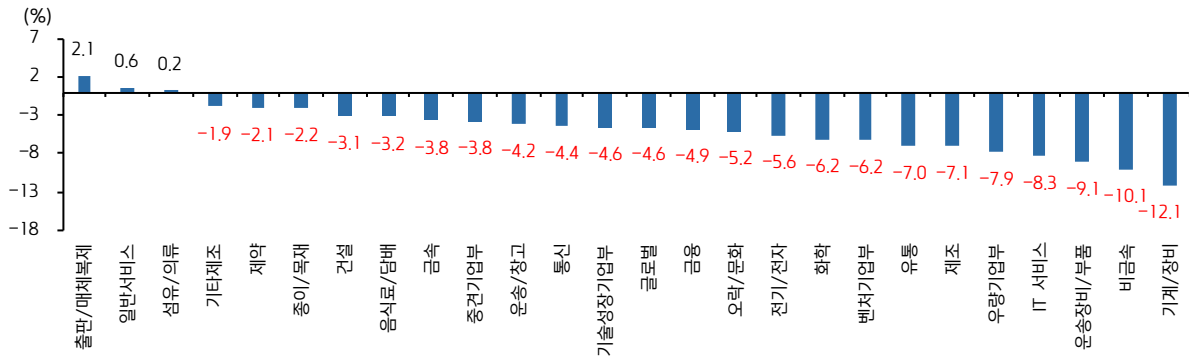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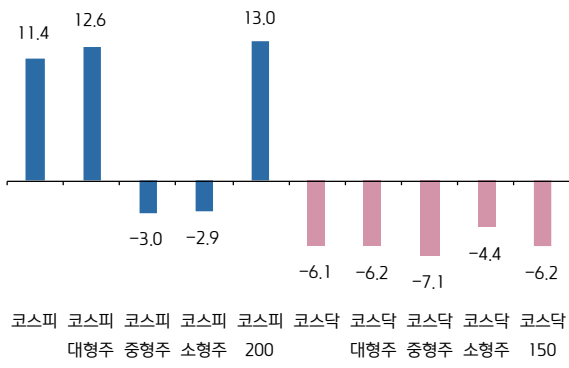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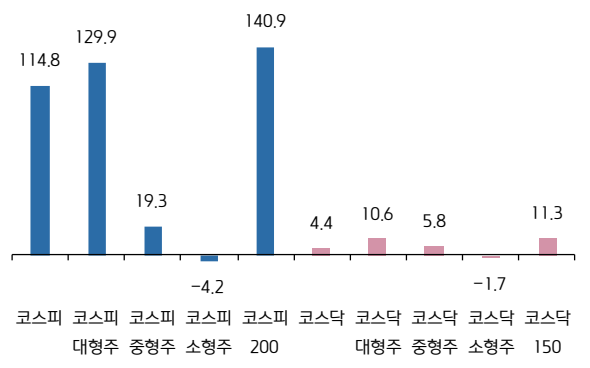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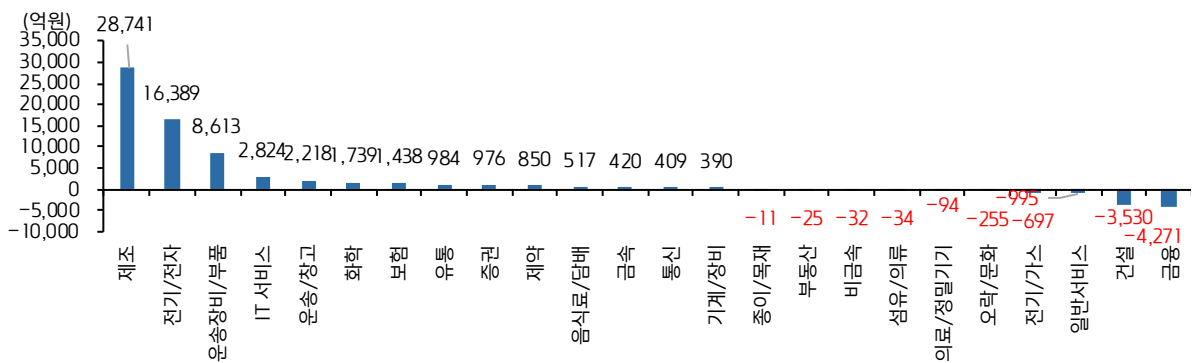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연초 대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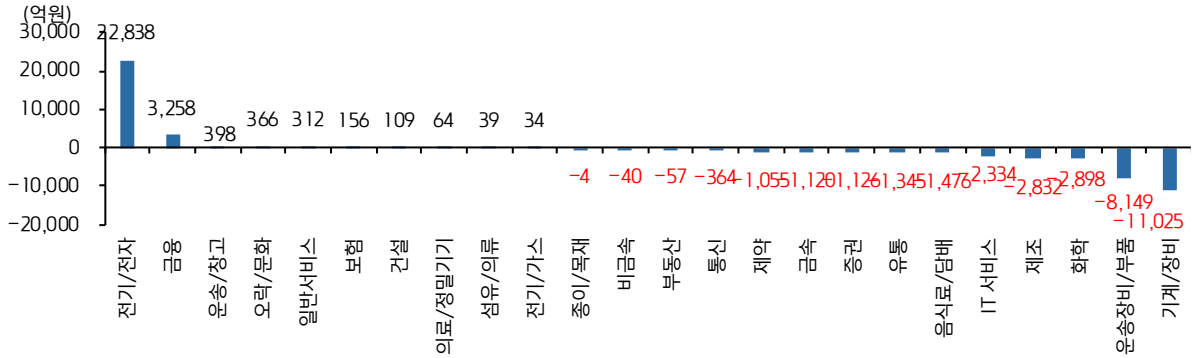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외국인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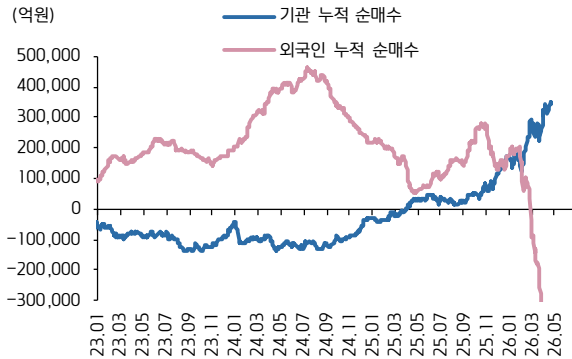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KOSPI 업종별 기관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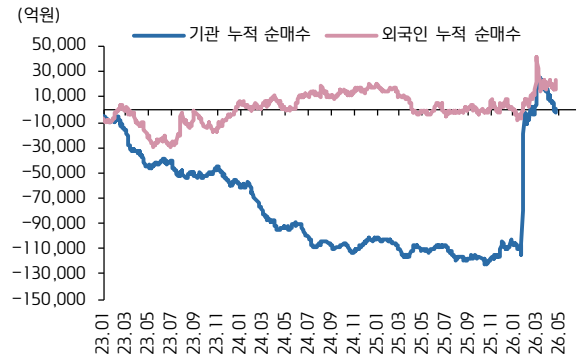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KOSPI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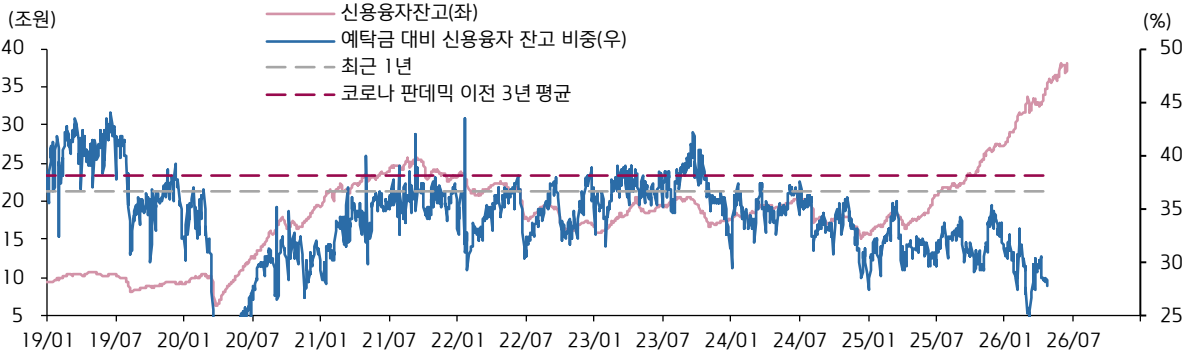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KOSDAQ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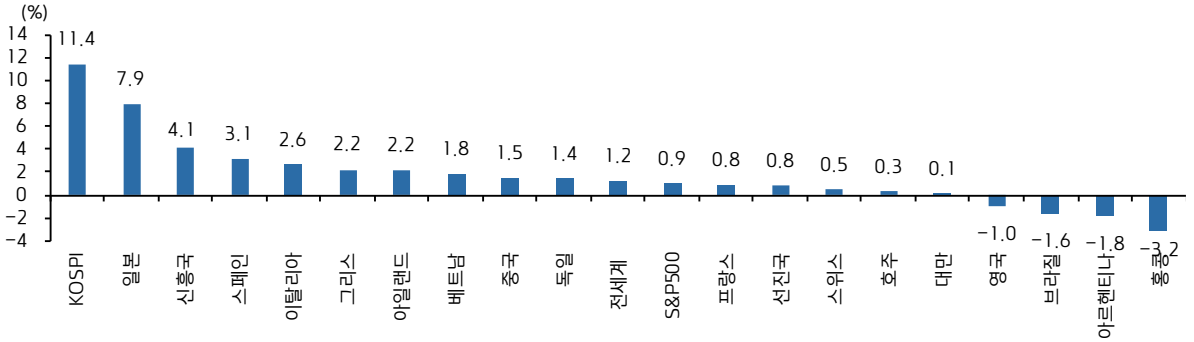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KOSPI+KOSDAQ 신용융자잔고 및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잔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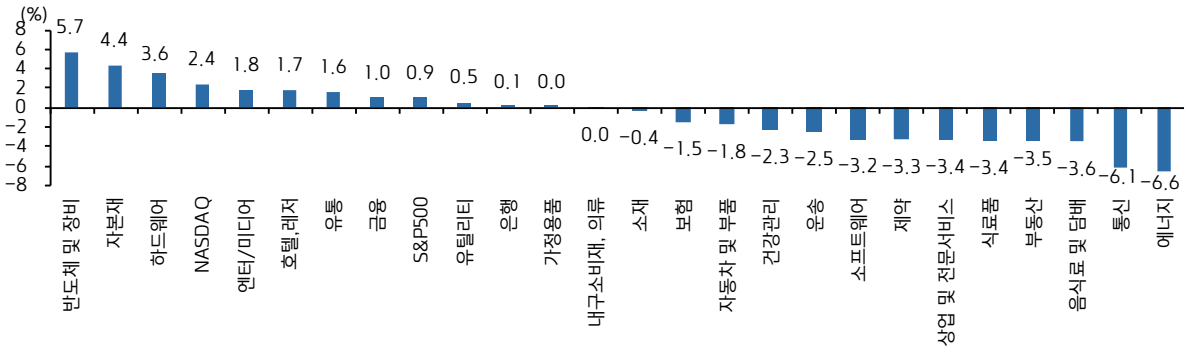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글로벌 증시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26개 업종별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